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철회 촉구 성명서

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 기독교사립대학(이하 기독교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동시에,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첫째, 기본적으로 종교교육과 종교교육을 구분하고 있으며 둘째, 채플이 종교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셋째, 사립대학 및 종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 서열화로 인해서 실제적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 대학구조 하에서는 넷째, 채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송실대학교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은 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써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②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 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무엇보다 ③ “대학에 배외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권위는 지난 광주00대학교 채플에 대한 권고문에서처럼 계속해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발생한 종립고등학교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서 이번 인권위 권고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음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인권위의 일방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

둘째, 학생의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이미 1995년 사립대학과 학생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지방법원은 “사립대학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 안 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그 내용에 기속된다”고 정확하게 명기하였다(서울지법 1995. 7. 6. 95가합30155).

셋째,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3항은 학생의 수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6조에는 대학의 학칙에 대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4조를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의 규칙은 인가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써, 즉, 법령상 기독교대학은 학칙에 종교교육을 명시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볼 때 이번 사안은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인의무 위반의 측면에서 해석될수 있음이 분명하다.

넷째, 인권위가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근거로 사용하는 사립대학의 비중 및 종립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해방 이후, 국가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할 때 개인이 재산을 헌납하여 사립대학을 설립하여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 이후 국가의 재정 상황이 나이지면서 국·공립대학을 설립하여 공교육을

강화하지 못한 채 사립대학을 공영화하거나 국·공립대학처럼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본 인권위 권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왜곡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성명서 ■

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날 사립대학 및 종립대학의 비율이 높다는 상황에 근거한 현실론적 판단을 하지 말고,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 확립을 통하여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본질론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4. 기독교사립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독교사립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2년 7월 22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예담학원)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영훈학원)

박광준 이사장(송실대학교)

유영완 이사장(목원대학교, 충청연회 감독)

김요셉 목사(원전침례교회, 중앙학원)

김정석 감독(명림교회, 서울남연회 감독)

박상진 교수(상임이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재훈 목사(이사장, 온누리교회, 한동학원)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영락/대광학원)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꽃동산학원)

손신철 목사(인천제일교회, 제일학원)

정길진 목사(우리성문교회, 진선학원)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7월 31일(주일) 제1404호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 8월 1~5일 추모기간
8월 2일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추모예배, 유튜브 중계
8월 1~5일 새벽기도회 하용조 목사 사도행전 설교 영상 상영

8월 2일은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다. 온누리교회는 8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한다. 추모 기간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월~금)에서는 하용조 목사가 생전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한 영상을 상영한다.

설교 주제는 8월 1일(월) '성령께서 설교하시다' (행 2:13-24), 2일(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행 4:13-22), 3일(수) '성령의 기도' (행 4:23-31), 4일(목) '성령과 구제' (행 4:32-37), 5일(금) '성령과 거짓 영' (행 5:1-11)이다. 새벽기도회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6시, 양재온누리교회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 TV로 참여할 수 있다.

추모예배는 8월 2일(화)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드린다. 하용조 목사 유가족과 온누리교회 리더십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가 사회를 보고,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블러썬채플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유가족 인사 등이 이어진다.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추모예배를 드리면 된다.

조항진 장로(한강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한 지 1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것 같다"면서 "추모 기간에 그리운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욱 권사(고양은평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이 남들이 보기에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며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셨던 무모한 사랑을 나도 전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소천했다. 향년 65세. 하용조 목사는 1976년 한국 교회 최초 연예인 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TV 설립,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등이 있다. 지난해 발간된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기념 <하용조 목사 평전>과 <하용조 강해서 전집>을 두란노 서점(서빙고, 양재)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여름 아웃리치팀 안전사고 유의 생생한 간증 및 사진 모집



여름 아웃리치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은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코로나19 감염 등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아웃리치팀 전체가 손 씻기 생활화, 실내 마스크 착용, 조리기구 소독 관리 등 여름철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실외에서 사역하는 아웃리치팀은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7월 27일 기준)이 참가한다.

한편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사역 생생한 간증 및 사진을 모집하고 있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2022 여름 아웃리치, 여름 캠프 등에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원고와 현장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원고와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보내면 된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내외다. 사진은 단체 사진보다는 역동적인 사역 장면을 담은 사진이 더 좋다. 성도들이 보낸 준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은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원고를 보낸 성도를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준다<관련 기사 8면>.

문의: 02-6959-0001

선교사 8유닛 파송

중동, 아프리카H국, 남아시아H국 등 7개국

8월 1일 주일예배에서 선교사 8유닛(7개국 14명)을 파송한다. 선교사파송식은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일 1부 예배와 양재온누리교회 일요일 2부 예배에서 진행된다.

지 역	이 름
중동	조슈아, 요안나
도미니카	노태규, 양미애
남아시아H국	데이빗, 크리스탈
일본	박미진
남아시아국	신승원, 강민영
한국(로잔위원회)	임선아
한국(남양주M센터)	서영찬, 김하린
아프리카H국	다윗, 승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은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십니다. 로마서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용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를 통해서 회복에 이르게 합니다. 잘못된 자를 처벌하고, 징벌하는데 그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지급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연합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닌 그 무엇을 첨가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구약의 두 인물을 인용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인물을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관통하며 사용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 혈통적 조상, 민

족의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주 거론하지만, 그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오해, 왜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개척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물이라고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보다 불순종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과 불신앙, 의심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고, 랍비를 통해서 재해석된 탈무드나 미드라쉬, 이 두 가지를 해석한 여러 지침서로 종교화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나를 찾아오는 선물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1~3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점이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 앞에 영혼이 민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멈춰 섰습니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심으로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은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

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약속이고, 자신의 형편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힘없는 이주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모든 족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기 어렵고, 상상하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끌려가는 믿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 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약 10년이 지났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건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습니 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창 15:6).

성경에서 ‘믿음’과 ‘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은 단순한 믿음의 모범 정도가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판단,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나를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 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번 부침을 겪습니 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 다. 불신앙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믿었다고 했는데, 16장에서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있어야 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믿음조차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믿음 자체를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믿음조차 파괴된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9~10절).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은 할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순서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맛있는 말씀해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렘 29:1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개인의 성공적인 미래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삼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곧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말씀일까?

일차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패배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목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앞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확실해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70년 이후의 귀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마저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특히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에서처럼 ‘내가’를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은 이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다.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의 생각을 품고 계시는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쏘아부으시는 재앙으로 생각했다(사 40:27, 49:14). 그리고 그러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들을 들려주며 미혹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나인데, 오늘 구절의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28장은 모두 하나나의 거짓 예언에 관한 기록이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왕의 명을 꺾으셨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것을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28:2-4). 예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다. 하나나는 거짓 예언으로 무책임한 ‘번영 신학’을 유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가시적으로는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평강을 위한 계획이며 이스라엘에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미래와 희망이란 반드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시간 이후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지금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어질 것이며,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들었을 때, 이것을 개인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듣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 잠시만 참고 기다리면 곧 회복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앙과 같은 절망적 상황이 평강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약속이 될 수 있는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2-13).

그렇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어서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며, 예루살렘에 있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재앙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곧 평강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국면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도 귀환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에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지금은 여전히 전염병의 시대이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공황의 시대이고, 세계적 이상기후는 이미 재앙이 도래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 교회와 성도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알리는 평강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생명의삶 QT 프리뷰(preview)

창조주 하나님, 불순종한 첫 사람



8월 1일~7일
창세기
1:1~3:24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천지 창조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혼돈한 곳에 ‘질서’를 가져와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해 피조물이 살 공간을 만드셨다. 땅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각종 식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물고기와 새,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시는데,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춤’을 의미한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닌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 조정하는 시간이다.

목상포인트 2: 에덴동산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다. 에덴동산은 아름답고 완전한 곳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하기 전 에덴의 모습, 그리고 가정(결혼 제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사람(히,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임의로’ (자유롭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존재와 역할을 규정하는 고귀한 일이다.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 (good)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처음으로 ‘좋지 않다’ (not good)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뱀을 배필’을 지으신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이룬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 ‘자유지’를 주셨다. 인격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던 에덴에서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 인류의 첫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자.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다. 뱀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간교하게 왜곡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불순종을 선택해 죄의 길로 들어선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죄다. 그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 뱀은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는데, 이는 부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클 것이며,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던 복이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는 저주로 변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죄가 확산하는 에덴동산 밖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계속되었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도신경 첫 문장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확실한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자.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식할 때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 조정하자.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 적용점을 찾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해 불순종을 유도했다.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마 4:1-11) 말씀을 늘 가까이하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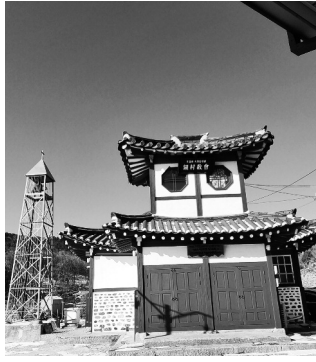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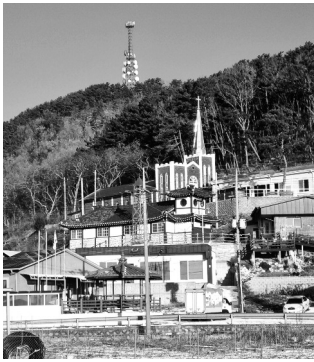
여동생 가족을 위해서!

제 여동생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동생의 남편이자 저의 제부인 이영길 장로(62세, 인천순복음교회)가 올해 1월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의식불명에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시시오.

남편의 병환과 재정문제로 힘들어하던 제 여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천하였습니다. 이 일로 온 식구가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불과 두 달만에 부모를 모두 잃은 상황에 있는 조카들이 걱정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희원이(32세)와 희성이(28세)를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재정문제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동생이 생전 지인들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과 긍휼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고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시오. / 양지혜 집사(성동광진공동체)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



섬 안에 있는 섬교회 '서도중앙감리교회'의 모습

섬 안에 있는 섬교회!

100년 넘는 서도중앙감리교회를 가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친구들!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강화도라는 섬을 지나 배를 타고 또 다른 섬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섬 안에 있는 섬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배를 오래 타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하루에 두 편만 운행되기에 일정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른 아침 서둘러 배를 타려면 강화도에서 숙박해야 하고, 아니면 주문도에서 오후 배를 타고 들어가 하루를 그곳에서 숙박하는

일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이곳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100여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만나 볼 교회는 '서도중앙감리교회'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256)입니다.

1893년 영국성공회 신부와 영국 해군 대위의 통역 겸 안내원으로 동행한 윤정일이 이 섬에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의 시작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누구 하나 믿음을 갖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10년이 지난 1902년 5월 윤정일이 감리교 전도인 신분으로 다시 이 섬에 들어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 섬에서도 울려 퍼졌어요. 외면과 무시 속에서 김근영이라는 열매가 맺혔고, 3년 뒤 이곳에 영생학교를 건립하고 신학교를 열었어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주민들이 조금씩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이 섬에서도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도중앙감리교회 성도들이 '일 인당 일원씩' 헌금해서 현재의 예배당을 봉헌했어요. 정면 4칸, 측면 7칸 전통 한옥 형태로 만들어졌고, 출입구가 정면 2칸, 측면 1칸의 2층 종탑형식으로 본 건물과 붙어있는 모양새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회

요즘 대부분 교회 건물은 평일에 잠겨 있는데, 서도중앙감리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100여 년 동안 마련하고 그 자리를 지켜온 교

회예요. 예배당 문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는 교회예요. 한때 서도중앙감리교회는 "유기농으로 농사짓자!, 땅을 살리자!, 앞으로 대안은 생명 농업에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를 직접 몸으로 실천한 교회로 이름이 났었어요.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생물을 저수지나 수로에 붓고, EM 발효액으로 생활 세제와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급했어요. 지금은 여러 이유로 EM 나눔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어요.

생명력 있고, 늘 꿈을 꾸는 교회

이른 아침 도착한 서도중앙감리교회 예배당에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어서 놀랐어요. 그 온기는 새벽예배에 모인 기도 용사들의 흔적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새벽예배 30분 전에 교회 종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고요. 하루 두 편의 왕복 배편만 있고,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지만, 서도중앙감리교회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울려 퍼지고 있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1998년 서도중앙감리교회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박형복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박형복 목사님은 빛나고 화려한 목회를 할 수 없더라도, 큰 부흥의 열매를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틈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계세요.

친구들, 목사님은 '꿈은 엎드림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요. 바로 그 엎드림의 기도를 보여주는 곳이 서도중앙감리교회예요. 친구들도 생명력 있고, 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서도중앙감리교회에 방문해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26. 우리 몸을 깨끗하게 가꿔요



우리들 작품

우리 집에 놀러 온 공룡



엄마랑 함께 택배 상자를 활용해서 공룡 옷을 만들었어요. 상자를 자르고, 연결하고, 그림을 그려서 멋진 공룡 옷을 만들었어요. 그 옷을 입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되어보았어요!

몇 달 전에 두란노 서점에서 <들어왔어? 공룡이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라는 그림책을 발견했어요. 집에 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룡의 탄생과 멸종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공룡의 모습을 상상해요. 엄마랑 매일 공룡 이야기를 하고, 직접 만든 공룡 옷을 입고 놀아요.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 송주안 어린이(양재온누리교회)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7월 25~26일 본문

1. 바울과 거짓 사도들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보기를 읽고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나누어 보세요(고전 10:12~18).

- ① 자화자찬(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함
- ②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자랑함
- ③ 서로 재고 비교함
- ④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 것처럼 자랑하지 않음

2. 바울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맞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요?(고전 10:4)

- ① 자신의 권력 ② 율법과 지식 ③ 하나님의 능력 ④ 많은 재물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kr)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몸소 보여주는 최용성, 한창욱 선교사

선교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세를 불리려는 포교,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교회와 크리스천이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여기, 복음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레바논 베카 계곡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있는 최용성 선교사와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터전을 잃은 소수 민족을 섬기는 한창욱 선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신자 85%가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고 한다. 비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19 탓일까? 아니면 비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과 애정을 왜곡하는 것일까? 둘다 아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름 아워치 시즌만 되면 각종 매체에서 일부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낯 뜨거운 행동을 지적하는 소식이 들려오곤 한다. 선교지 사원에서 큰 목소리로 땅 밟기를 한 선교팀을 나무라는 뉴스는 매년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

섬기기 위해 레바논으로 향했다. 그때부터 최 선교사와 동료 선교사들은 레바논 베카계곡에서 생활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레바논 베카계곡에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레바논 정부로부터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다.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도 그들을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

보통 무슬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테러, 총, 전쟁 등이다. 대체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 최 선교사도 무슬림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 선교사가 만난 무슬림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사람들이

최 선교사와 동료 선교사들은 난민 가정에 식료품과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졌다. 시리아 난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해와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뀐 것이 은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전부터 난민촌에는 각종 질병이 유행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선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해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을 존중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레바논에서 시리아

은행에서만 현금을 인출 하도록 제한했다. 교회에서도 집합을 제한해서 교회와 선교사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다행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숨 쉴 구멍이 있다. 그 덕분에 한창욱 선교사가 꺼야족 난민들을 섬길 수 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저항운동 싹을 자르기 위해 무장투쟁 하던 소수민족들을 강력하게 탄압했다. 한창욱 선교사가 섬기는 꺼야족 난민들도 미얀마 군부가 탄압하고 있는 소수민족 중 하나다.

“쿠데타 초기 무장투쟁을 했던 소수민족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소수민족이 죽었고, 수만 명의 꺼야족이 정든 마을을 떠나 태국으로 가거나 태국 국경의 강가에서 무리 지어 생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용성 선교사와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고향을 잃은 꺼야족을 섬기는 한창욱 선교사(왼쪽부터).

하는 선교가 어쩌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 됐을까? 바로 잡아야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다.

최용성 선교사의 고백 “선교의 시작이자 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이자 끝은 사랑입니다.”

최용성 선교사는 레바논 베카계곡에서 생활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원래 최 선교사는 시리아는 물론이고, 난민들에게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서원했다.

최 선교사는 지난 2019년 시리아 난민들을

아니었다. 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먼저 다가와 준 이들도 무슬림이었다. 최 선교사가 난민 캠프를 방문했을 때도 환대해준 사람들이 무슬림이었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서 곤란할 때도 선풍기 나셔서 도와준 이들도 무슬림이었다.

“무슬림에게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일이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을 환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손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섬김에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난민 캠프에 방문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환대를 해줍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러 갔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옵니다. 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를 정말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은 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언어가 잘 안될 때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무슬림이 자기 일처럼 도와줬습니다.”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한창욱 선교사의 당부 “미얀마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국제 정세가 워낙 혼란스러워서 금세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발생한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는 한창욱 선교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부터 미얀마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선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은행을 통제해서 특정 상품과

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파교회에도 소수민족 중 하나인 꺼야족이 찾아왔습니다.”

한창욱 선교사와 인파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70여 명의 꺼야족 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농경지를 빌려주거나 남는 땅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꺼야족 난민들을 섬겨야 할지 기약이 없지만 그들을 섬기는 손길에는 늘 기쁨이 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 받거나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소수민족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방식으로 저희를 사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가슴 벅찬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만큼 기쁘고 보람찬 일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은 그 존재 자체가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이다. 그들의 삶과 사역을 응원하고 기도한다.

‘조력존엄사법’에 대하여 1. 크리스천 법학자의 시각에서 2. 크리스천 의사의 시각에서

생명을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조력존엄사법의 문제와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법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개념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불린다. 조력존엄사를 두고 생명경시냐,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냐의 대립이 첨예하다. 크리스천들은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 2회에 걸쳐 크리스천 법학자와 의사의 시각에서 조력존엄사법을 고찰하는 글을 실는다.

/ 편집자 주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의료윤리
연구회 회장)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조력존엄사’ 법안을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라고 했지만 결국 안락사 허용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죽음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을 빌려 의료기관에서의 자살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이 법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반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조력존엄사법의 문제점

첫째, 조력존엄사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 존엄한 죽음의 개념에 혼동을 일으켰다. 이미 의사의 조력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자살하는 행위를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에서도 의사에 대해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한다고 함으로써(안 제20조의7) 이 행위는 ‘자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존엄한 죽음이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집착하지 않고 통증이 완화된 상태로 삶을 정리하며 자연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존엄사라고 하면 안 된다. OECD 1위 자살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조금이라도 존엄하다는 개념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법안에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존엄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둘째, 설문조사의 질문과 답을 왜곡되게 인용하였다. 의원실은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 82%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질문이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입법을 단박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찬성의 이유에 대한 답변은 법안이 제안하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과는 사뭇 다르다. 고통의 경감 때문에 조력자살을 택하겠다는 경우는 찬성자의 13%에 그쳤다. 나머지 87%는 죽음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거나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력자살법을 찬성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말기 환자의 통증과는 무관하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우울감이나 사회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마저 안락사나 조력자살의 대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조력자살 대상에 대해 단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만 한 점이다. 고통은 주관적이어서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01년부터 상기 법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네덜란드의 경우 20년 동안 고통의 대상을 확대해 왔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조력자살을 택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

않는다. 죽음에 이르는 상반된 방법에 대해 이름을 위장해 동일 법안처럼 다루면 안 된다.

조력자살법안 반대해야 하는 이유

첫째, 죽음은 나 자신의 권리가 아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고 동료나 담당 의료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살을 택하면 자신의 인생만을 마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은 가족들의 인생에 평생 깊은 상처를 준다. 반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응어리를 풀고 떠나는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선물이 된다. 유한한 삶에 대한 겸손함과 지혜를

말할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무리 자기결정권으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다.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인생은 죽는 것이 낫다는 압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법안이 마련되어 병원에서 안락사를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살고 싶다는 진실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정작 본인은 가족들의 삶을 하루라도 더 보고, 사랑의 관계 속에 돌봄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다.

넷째, 안락사 법안은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려는 의사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의사들은 오직 환자의 생명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 존재한다. 고통을 없앤다는 목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환자를 죽이는 일에 의사의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사조력자살은 의사들의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만약 의료윤리를 위배해도 좋다고 사회가 합의하게 되면,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죽음의 기술을 의대생 시절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 의학에는 수용할 수 없는 통증을 견딜 만하게 경감시키는 다양한 통증 조절법이 있다.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치료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안락사가 아닌 고통을 줄이는 치료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2020년, 말기암 환자 77%가 완화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안락사법이 아닌 호스피스 지원법을 만들어 호스피스 병상을 기다리다 죽는 환자가 없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치료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의료비가 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육체적 통증 완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심리적·영적 돌봄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함께하며 심리적으로 돌봄을 받고,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해 영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안락사나 조력자살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건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물을 수 있어야 존엄한 사회다. 그것이 사회적 웰빙(Well-Being)이다. 존엄사는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릴 때까지 그의 삶을 돌봐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그 숨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안내하는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존엄사는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릴 때까지
그의 삶을 돌봐주는 것이다.
숨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로 영혼을 안내하는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W청년부

프랑스 마르세유 아웃리치

두 달 전 마르세유 아웃리치 팀원 모집 공지가 시작된 날부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해두신 것처럼 여건을 허락하셨다. 여름 휴가 일정을 아웃리치 기간과 딱 맞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나는 W청년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팀원들과 어색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과정이 행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전부 맡겨 드리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내 상태가 드러난 것 같았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도착한 지 하루가 안 되어 심한 복통으로 아팠다. 여러 변수와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더니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긴장한 것 같았다. ‘아,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악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릴 때 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곧잘 아팠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것 또한 영적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흔들리면 안 되겠다’면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며 잠들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과 팀원들, 현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보살핌 덕분에 만나질 정도 지났더니 더는 구역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컨디션을 회복했더니 평안이 찾아왔다. 그 평안 덕분에 아웃리치 일정 동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우리는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책



W청년부가 마르세유 항구에서 북아프리카로 떠나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다.

을 배포하는 사역을 했다. 마르세유 항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가 북아프리카로 떠난다. 고향으로 가져갈 짐파라리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배에 타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역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자신은 무슬림이므로 성경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힘들게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 성경이 도로 내 손에 들어오기도 했다. 노르딘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 노르딘은 모스크 건립비용을 모금하는 알제리계 무슬림인데, 우리가 나눠준 성경책을 노르딘이 모두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다시 내 손에 쥐여줬다. 노르딘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과 속상함이 교차했다. 아웃리치 첫날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역에 앞서 ‘성령의 권능으로 분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 정의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담대함과 용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겼더니 노르딘의 영혼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우리는 노르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 뒤로

는 가장 큰 벽처럼 보였던 노르딘의 행위가 작게만 느껴졌다. 오히려 무슬림들의 방어적인 자세와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슬림 가정 아이들의 빛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다.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선물”이라고 했더니 기뻐하며 받던 아이들의 표정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서 같이 웃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일주일일 금방 지나가 버렸다. 너무 아쉬우면서도 꿈같았던 시간이었다. 내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현지 선교사님과 목사님, 팀원들과 멋진 팀워크로 무사히 아웃리치를 마쳤다. 기쁨이 가득했던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초대 해주신 사역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무슬림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담대한 마음과 용기의 불씨가 일상에서도 꺼지지 않기를 소망한다.



육혜주 자매
(W청년부)

SNS청년부

우리들학교 아웃리치

지난 7월 15일 우리들학교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들학교는 교회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어쩌면 마음의 거리는 가장 먼 곳인 것 같다. 우리들학교는 북한에서 온 학생들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다.

8월에 예정되었던 아웃리치 일정이 7월 15일 우리들학교 방학식 당일로 확정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준비 기간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분주해진 나는 마르다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셨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전해줄기를 원하니? 사역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한다.”

우리들학교 학생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웃리치 팀원들과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우리들학교 아웃리치를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두신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을 만났다.

우리들학교 아웃리치 일정은 크게 두 가지



SNS청년부가 우리들학교에서 방학식과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였다. 우리들학교에서 방학식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과 고양 스포츠몬스터(스포츠 체험시설)로 이동해 학생들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방학식과 시상식을 함께하며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노력과 성장을 축하했다. 우리들학교에서 한국어로 읽고 쓰는 것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방학식을 마치고 스포츠몬스터로 이동했다.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예상했던 일정보다 축소되어 학생들과 팀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는데도 서로 웃으며 인사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모두에게 행복으로 남아서 앞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쌓게 되기를 기도했다.

아웃리치가 끝나고 교감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다.

“SNS청년부와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로 우리들학교 학생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곳에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 한국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우리들학교 교감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학교 학생들의 마음에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기록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깨지고 었드렸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학교를 사랑하셔서 선생님들과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이다. 부르신 분도,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학교를 지키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다.

우리들학교 학생들이 8월 11일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학교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한다.



권민정 자매
(SNS청년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떼는 말이야

시도하라!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수십 번이나 취업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격지심인지 주눅 들고, 눈치 보게 되고,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아예 취업이 안 되면 어찌나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과거보다 훨씬 어렵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위로로 보낸다. 내가 취업을 할 때 만해도 대기업 취업원서가 학과 사무실에 산처럼 쌓여있었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골라서 갈 수 있었다. 낮은 학점도 취직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선호 직장은 경쟁이 치열했지만, 기대수준을 조금 낮추면 좋은 직장이 널려 있었다. 1997년 말 IMF가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랬다.

취업 준비보다 힘든 것이 실직자의 구직이다. 나는 33년 직장 경력이 있는데 스무 곳이 넘는 회사에서 일했다. 이직도 해봤고, 권고사직도 당해보았다. 휴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했다. 회계, 기획, 마케팅, 홍보, IR, 상장(IPO) 업무, 인수합병(M&A), 투자 업무 등을 하면서 성공한 기업보다 망한 회사에서 많이 배웠다. 대기업보다 도전적인 벤처기업에서 인생의 깊은 길을 깨닫기도 했다. 나는 취업만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너머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 경험과 인생이 녹아있는 몇 가지를 조언한다.

첫째, 낮은 선택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 분야의 경험은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이 된다. 지금 갈 수 있는 회사에 빨리 취업할 것을 권한다.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빨리 취업해서 일을 마주하며 스스로 적성을 알아보고, 취향과 현실에 맞대보는 경험이 더 낫다. 나는 언론사 기자가 되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언론고시를 전전하다 우연히 들어간 회사에서 내 적성을 알게 되었다. 밤새 일해도 재미가 썩는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 스스로 적성을 잘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흡족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알게 되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 취업을 위해 걸모습만 화려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실제 일해 본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일을 통해 스스로 적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둘째,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구분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교회에는 ‘워워벨’이라는 이분법이 있는 것 같다. 워크(일, work)와 워십(예배, worship)의 밸런스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의 생각에서 일과 예배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일(Vocation=소명)과 안식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분법에서 벗어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탁월하게 일하며 이웃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때로는 과감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나는 멘토로서 취직, 이직, 창업 등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신중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기도로 준비하고 실력을 연마하면 돌파의 때가 주어질 것이다. 미국 유명 대학원을 나오고도 첫

직장에서 전공과 다른 일을 해야 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 그 과감한 선택이 오래지 않아 자신의 전공에도 맞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직장을 찾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간의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귀한 경험을 한 것이다.

작은 회사의 대표로서 사람을 뽑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주겠다. 혹시나 스펙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지 모르겠다. 학력보다 경력, 이력보다 평판이 중요하다. 정보력(넓음)보다 관계능력(깊음)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앙이 확실하면 특별 가산점을 받는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만이 좋은 일이 아니다. 시도하라. 때를 기다리라. 자기를 의지하면 길이 없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박기일 멘토
(김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비난 대신 위로와 격려를!

가족은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과 기대가 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가족이라면 가족이 함께 하는 세계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실제 가족이 함께하는 세계여행을 실행에 옮기는 가족도 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한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가족끼리 다투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이 힘들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가족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대했던 여행이었는데, 심신의 피곤이 쌓이면서 가족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피곤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순간에는 마음속 깊이 담겨있던 미성숙함이 표출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쏟아내는 말들, 생각과 느끼는 분위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가족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비난 가족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과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서로를 위로할 여유가 없다. 한 번 웃어줄 여유도 없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도 힘든 환경이 된다. 가족의 요구, 처리해야 할 문제들, 각종 부탁, 아이들의 도움을 구하는 청얼거림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긍정성을 가족들에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로 인해 무겁고, 힘든 감정이 자신을 억눌러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마치 폭우로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칠 듯 말 듯 한 상태라 할 수 있

다. 이 상황에서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그때는 이성으로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동안 잘 통제하고 놀라웠던 원초아의 다듬어지지 않았던 미성숙함이 드러난다.

가족의 이사, 재정적인 압박, 자녀의 중요한 진로 문제, 시댁 혹은 처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면 배우자와 가족을 향해 비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상태가 된다. 가족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력도 극도로 낮아진다.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비난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의 사소한 행동도 몹시 신경에 거슬리게 된다. 잘못을 모두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할 수 있다. 성숙의 경험은 타인을 비난했던 행동습관을 멈추고,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이 가족에게 했던 비난 경험이 고통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가족 안의 갈등, 스트레스 상황, 자녀 양육 등 어려운 상황에서 행했던 비난일 것이다. 그런데 모두 공감하듯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다. 비난이 아니라 위로이며 격려다. 문제는

위로나 격려를 가장 힘든 순간 배우자나 가족에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어렵다. 비난은 서로를 찌르는 창이 되지만, 위로나 격려는 힘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능력있는 언어가 된다. 대입을 준비했던 자녀가 불합격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번번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나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해보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말 보다 “너의 학습 태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평소에 공부하라고 했잖아” 등의 비난과 책망이 먼저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시도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득했던 상황에서 내뱉었던 말,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도 있다. 어떤 사람은 과거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상처의 말을 평생 간직하면서 부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여잡고 산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넌 도움이 안 되는 녀석이야” 등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다. 이러한 말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한 사람의 삶의 분위기와 성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이 자신의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으면 그

것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다. 혹여라도 자신의 부정적 핵심 신념이 가까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매우 부정적인 비난이나 경멸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뱀속 깊이 남아 있다면 그 말을 되새기지 말고 재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을 심하게 비난했던 가까운 그 누군가의 말은 당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스트레스 가득했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어두운 분위기의 말이 많다. 본심이 아니다.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말씀이구나’, ‘기대가 좌절되어서 마음이 아팠다는 의미구나’, ‘나의 인격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정도로 재해석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비난을 퍼붓고 싶은 상황도 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에 비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할지라도 나와 가족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되면 좋겠다(약 4: 11~12).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가장 먼저 묻힌 ‘존 헤론’ 선교사



존 헤론 선교사

1890년 7월 28일,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조선 땅에 한 외국인이 묻혔다. 가장 먼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 ‘존 헤론’ 선교사다.

존 헤론 선교사는 1856년 6월 15일 영국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그는 1881년 자신의 꿈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 진학한다. 학부 시절 내내 개교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고 불릴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883년 2월 최고의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했다. 의사 자격을 얻은 그는 테네시 동부의 존스보로에서 여자친구 헤리엇 김슨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존스보로장로교회의 집사로 봉사했다.

의사로서 앞길이 창창했던 존 헤론의 일생을 바꾼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소식

이었다. 최초의 한글성서 번역자로 알려진 이수정 선교사가 1883년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존 헤론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선교사도 찾지 않는 나라 조선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이야기가 존 헤론의 마음을 움직였고, 조선 선교를 결정한다.

조선 선교를 가기로 한 존 헤론은 더 나은 의료선교사역을 위해 1883년 9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뉴욕 의학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의료연수를 마치고 헤리엇 김슨과 결혼하고 조선을 찾았다. 그렇게 존 헤론이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소속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 조선 땅을 밟았다.

존 헤론은 알렌 선교사가 원장으로 있던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되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했다.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마을마다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병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존 헤론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존 헤론 선교사는 한국 성서 번역과 문서선교 사역에도 앞장섰다. 1887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선교사 등과 함께 성서번역위원으로 참여했고, 1889년 10월 조직된 한국선교사공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역임했다. 그 이듬해인 1890년 6월에는 문서선교를 위한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기관인 대한성교서회(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 창설에도 큰 역할을 했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한글성서 번역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불철주야 조선을 위해 애쓰던 존 헤론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는 쓰러지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존 헤론은 임종을 지키기 위

해 옆에 앉은 부인과 두 딸, 친구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제중원에서 함께 일했던 조선인들을 불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 과로와 전염병으로 쓰러져 3주 동안 병상에 있던 존 헤론 선교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남기고 1890년 7월 26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끝까지 조선의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고 기도하던 그가 묻힐 땅이 없었다. 동료 선교사들이 정동 미국 공사관 경내에 임시로 묘소를 정하려고 했는데 왕실과 백성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에서 양화진에 땅을 내어주었고, 그곳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시작이었다. 존 헤론 선교사가 숨을 거둔지 3일 만인 1890년 7월 28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혔다. 현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와 그의 가족 145명이 잠들어 있다.

기독교OTT ‘풍당’ 추천 프로그램

추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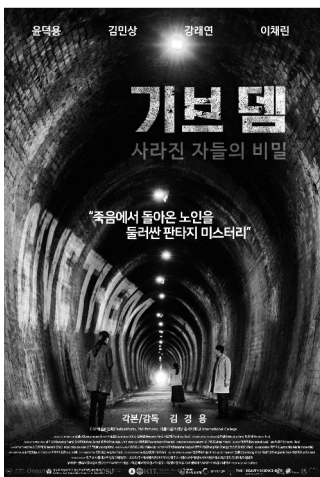
신간 소개

목사 이정규와 개그맨 이정규의
‘정규VS정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위선에 가득 찬 종교를 믿어야 하나요?”, “기독교는 타 종교에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요?”, “혼전순결 꼭 지켜야 하나요?” 기독교OTT ‘풍당’이 신규 론칭한 프로그램 ‘정규VS정규’에서는 그동안 교회에서 쉽게 말

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거침없이 꺼낸다. 평소 교회를 오해할 만한 내용이나 율법적인 내용을 질문하면,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준다. 무조건 성경 말씀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평소 크리스천들이 현실에서 고민했던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말씀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5화까지 공개된 ‘정규VS정규’에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크리스천의 위선, 기독교의 혼전순결, 성경에 대한 오해, 이율배반적인 기독교’ 등의 주제를 다뤘다. 총 9편까지 업로드되는 ‘정규VS정규’는 매주 금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기브 템:
사라진 자들의 비밀

수록 점점 젊어진다. 젊어지는 만큼 삶의 기억도 사라져간다. 아들(김민상 분)과 딸(강래연 분)은 젊어지고 변해가는 아버지를 불안과 혼란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뒤를 쫓는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과 맞닥뜨린다.

영화 기브템은 생명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창작인들의 모임인 ‘CCF(Christian Contemporary Film) 제작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기브템은 선한 뜻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완성됐다. 40분짜리 짧은 영화 한 편이 인간에게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명을 저버린다는 것이 단 한 개인의 문제이지만 한 건지,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시청: 유튜브에서 ‘기브템’ 검색

‘생명존중’과 ‘태아보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선한 영화가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4일(월) 유튜브로 공개된 시간여행 판타지 미스터리 단편영화 ‘기브템: 사라진 자들의 비밀’(이하 기브템)이 바로 그것이다. 영안실로 옮겨지던 노인이 큰 숨을 토해내며 반짝 눈을 뜬다. 되살아난 노인은 시간을 여행하듯 하루가 지날

성막의 교과서!



《성막의 세계》
김경열 저 | 두란노 | 30,000원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의 절반 분량이나 사용하면서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성막에 대해 이토록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학자 김경열 선교사가 쓴 《성막의 세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책 《성막의 세계》를 펼치면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이미지가 떠오른다. 흥미를 끄는 사진과 그림 자료들이 넘쳐나고, 성막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할 설명이 가득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까?’ 싶었던 성막이 궁금해진다.

저자는 《성막의 세계》에서 성막 건물과 비품의 설계와 제작, 형태를 정확하게 재구성했다. 성막에 들어간 자그마한 부품 하나까지 제작과 조립 방법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살핀다. 책 《성막의 세계》는 성막의 외형뿐만 아니라 성막이 지닌 의미도 친절하게 설명한다. 저자가 오랜 시간 연구해 온 성막의 의미와 신학적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성막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알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용산구 지역목회자들이 대담을 하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

용산교구 협의회 목회자 부부 위로콘서트

용산구와 용산구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기로 다짐하고 기도했다. 지난 7월 26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용산교구 협의회 목회자 부부 위로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위로콘서트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창욱 목사(한남제일교회), 이길원 목사(신흥교회) 등 용산구 지

역 교회 목회자 부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산교구 협의회 목회자 부부 위로콘서트는 ‘CRUX’와 윤희주 장로의 특선, 용산구 목회자 5인의 대담, 조금엽 관사의 마마클럽 소개, 박희영 구청장의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용산구와 용

산구 지역 교회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용산구민들을 위해 용산구 지역 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소망음악회’

8월 6일 오후 7시 30분 양재 기쁨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소망음악회’가 8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소망음악회는 뉴욕 IN2온누리교회가 주최하고, 홀리임팩트가 협력, 줄리어드 예일음대 맨하탄 매네스 음악대학 동문회가 후원한다. 소망음악회 티켓 판매 수익금과 선교기금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

리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 ‘인투 클리닉(IN2 Clinic)’을 레바논에 설립할 예정이다. 소망음악회에 참석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somanconcert.site)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티켓 가격은 25,000원.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기후행동 캠페인’

동유럽 몰도바 두보브카마을 호수 복원 계획

NGO 더멋진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원형을 복구하는 ‘기후행동 캠페인’을 한다. 오는 8월 한달 간 기후행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모금액으로 ‘몰도바 두보브카마을 호수복원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

의 식수원 확보하는 것은 물론, 농장과 양어장 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후원 계좌: 573-910009-09905 (하나은행) 문의: 02-2271-2246

온비아 갈라디아서 참가자 모집

온비아 갈라디아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비아 갈라디아서서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공부하고, 복음을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논증을 통해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복음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시다’, ‘복음 변론을 위한 준비’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9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3만 5천 원. 문의: 010-6221-1028

두란노아버지학교 훈련생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의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 시대 아버지들을 바로 세우는 장(場)이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8월 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4906-1313

서초구가족센터, 맘애크스와 협업

물품후원, 심리상담, 장소 제공, 송년모임을 함께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서초구가족센터(관장 박준기)가 사회선교부 맘애크스(미혼모 가정 지원 및 멘토링)와 협업해 다양한 사업을 한다. 지난 7월 21일(목) 그 첫걸음으로 서초구가족센터가 맘애크스에 쌀과 양곡세트, 인형 등을 후원했다. 서초구가족센터와 맘애크스의 협업은 이제 시작이다. 맘애크스 소속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에 있을 맘애크스 송년모임도 서초구가족센터와 협업해 개최할 예정이다. 송영범 대표이사(온누리복지재단)는 “맘애크스와 협력해 생명존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 리더십 아웃리치

철원 일대 교회와 한국전쟁 전투지 답사

서빙고 이웃사랑팀 리더십들이 지난 7월 23일(토) 아주 특별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철원제일감리교회와 노동당사, 백마고지, 한탄강 올레길 등을 둘러보며 통일 이후 난민 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웃리치에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박순길 장로(서

빙고 이웃사랑팀) 등 리더십 8명이 참석했다. 박순길 장로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에도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선배들의 경건함에 경외감이 들었고,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친구가 되어주는 여름 소풍

영등포구로공동체가 7월 23일(주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영종도로 여름 소풍을 다녀왔다. 이날 소풍에는 영등포구로공동체 성도 20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8가정이 참석했다.

“주님의 위로, 평강, 치유를”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 및 연주회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금)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 및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다비드 선교사(우크라이나),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온누리교회 성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 및 연주회에서는 김다비드 선교사의

사역보고와 피아니스트 이지원 권사가 이끄는 ‘더멋진챔버’의 연주가 이어졌다. 김문갑 장로(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몰도바에서 난민들의 전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연주회를 할 것”이라며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7월 세례자

■서빙고
이정옥 640301
장정민 870618
전시원 031012
조기훈 940306
입교
김희준 731108
최주미 020320
유아
권나엘 220308

권준형 윤민희
김서준 210607
김도형 안선경
김정우 210105
김덕연 임채경
김해준 210712
김재민 김환주
노세이 210528
노재현 현민교
서평강 210218

서의석 이영주
송민혁 170429
송인창 남영욱
송수혁 201110
송인창 남영욱
이 솔 200801
이 준 이나라
한시울 220603
한명철 최강미
황서준 210103

황희승 이해민
황유나 210209
황창희 김희원
황이나 210209
황창희 김희원
■양재
김지연 851216
유아
권지안 200214

권혁찬 김해민
김규리 210706
김성훈 김은희
김로암 220103
김현진 이지나
김은수 211017
김호영 장유리
민경준 200812
민창기 전상희
박하임 211021

박상태 김주혜
방엘림 220126
방선희 박혜현
배수아 210812
배희훈 김민정
오주안 210710
오일록 박혜미
이로이 210125
이상묵 양재연
이아인 210125

이상묵 양재연
이우주 200816
이동욱 김다은
이윤비 200916
이정현 고은하
임서하 200915
임영욱 김예지
정유안 200926
정연욱 한지원
주하경 211203

주형진 최은지
한빛나 220223
한규창 김지은
한지아 210831
한 국리주미
■대학청년부
요셉
윤예진 841127

■ CDC 수료 간증



/ 박윤하 자매(허브대학부)

신앙생활의 좋은 양분

바이블아카데미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과정을 수강했다. CDC 과정을 신청할 때만 해도 학교 공부와 과제, CDC 과정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함께 해준 지체들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동역자들 덕분에 무사히 CDC 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CDC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학청년부의 여러 목사님의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리더십을 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등 본질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순장으로서도 CDC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 순장이라는 자리는 항상 어려운 직분이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순을 일반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 순원들과 친해짐과 동시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순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둘 중 하나로 치우치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했다. 나도 아직 신앙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순장으로서 순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 고민을 하는 중에 CDC 과정을 수강하며 리더십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CDC 과정과 함께 한 새벽기도회, 큐티, 중보기도 덕분에 말씀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또 나에게 대한 확신이 부족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주어진 역할과 직분에 충실하고, 교회 밖 삶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CDC 과정이 신앙생활에 좋은 양분이 되어준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고 싶다. 순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순장이 되고 싶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안은주 순장(S브릿지공동체)

순장은 목자이자, 영적 부모!

온누리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순장님을 만났다. 여러 순장님의 역량과 열정이 달랐지만,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었다.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공동체에서 머리 큰 순원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 보였다. 순장님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는 절대 순장 못하겠다. 너무 힘들겠다’라고만 생각했다.

공동체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역도 하고,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여러 지체와 교제하는 시간이 늘었다. 지체 한 명 한 명의 사정과 환경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공동체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나도 공동체를 섬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장 낮은 자리인 순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피어올랐다. 하지만 순장의 역할이 힘드니까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미루고 미루다 마음의 때가 이르러 지난해부터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순장을 맡기 전에는 겁이 났다. 그런데 섬김

의 자리에서 받는 축복과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축복과 은혜를 조금씩 경험했다. 순장학교 참가신청을 했다. 순장학교 시간이 주일 저녁이어서 쉬고 싶고 피곤했지만, 매주 거듭되는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역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뜨거워졌다. “순장은 목자이자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부담감이 먼저 들었지만, 나도 정말 그런 순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순장으로서의 나의 마음 자세를 정비하고, 교회와 공동체, 순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색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장학교에서 순장님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전화심방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영성을 배웠다. 순장님들과 동영상 만들면서 경청, 공감, 사랑, 기도, 배려, 케어, 격려하는 순장이 되겠다고 외쳤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순장으로서의 덕목과 키워드를 내 마음에 새기며 순장학교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려 한다.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이지선 성도(북누리공동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19 시대 탓에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고, 순예배도 온라인(Zoom)으로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편안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생명의 삶>이 몇 달째 버려지고 있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는데 고민에 빠졌다. 마음에 외닿는 성경 구절이 없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더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공동체 지체 한 분이 큐티스쿨을 수료했다는 축하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스쿨에 들어가 봤더니 큐티스쿨 모집 광고에 ‘동영상 4주’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오후 시간이 늘 바쁜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신청했다.

큐티스쿨을 시작하면서 생긴 나의 기대감이 오래가지 않았다. 4주 동영상은 맞는데 오리엔테이션에 4주 동영상 강의와 매주 큐티 나눔, 온라인 모임을 해야 했다. 매주 큐티하고 나눠야 하는 시간이 어려웠다. 처음에는 과제와 모임을 위해 매일 한 시간씩 성경을 읽고, 필독도서 <큐티 하면 행복해 집니다>를 읽었다.

눈으로 읽고, 묵상도 없고, 적용도 없는 큐티가 나에게 감동을 줄 리 없었다. “적용이 없는

큐티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문구를 보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큐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큐티하면서 필요한 것은 <생명의 삶>뿐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 말씀을 받아들이 마음발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해왔던 나의 큐티 생활을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시간이 기대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셨다.

6주 동안 이어진 큐티스쿨이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게 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매일 버려지는 <생명의 삶>을 보게 하였고, 나를 큐티스쿨로 불러주셨다. 큐티스쿨을 통해서 올바른 큐티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큐티스쿨을 하는 동안 나는 매일 아침 큐티를 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 큐티스쿨 155기 2조 조원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한 조로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배려와 격려로 응원해주신 테이블 리더님과 조원들에게 감사하다.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경희 자매(S브릿지공동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나는 남양주온누리교회 다문화(베트남)공동체를 섬기며 자매님들과 그 자녀들과 교제하고 있다. 2019년 어린이 보조교사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에서 고슴도치처럼 경계하는 한 소녀를 보았다. 그 소녀는 어른의 질문과 호의에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할 게요”라며 관심을 거절했다. 그 경험이 내가 왜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했다. 보조교사를 하면서 7개월 동안 한 가정을 위해 차량봉사를 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는 기쁨도 얻었다. 그럼에도 나의 구체적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찾고 있을 때,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어느 양육자님의 간증을 들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다문화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차량봉사를 하며 친구가 된 자매님 가정에서 매월 한 번씩 자랑면 파티, 피자 파티, 치킨 파티 등으로 식탁교제를 나눴다. 이 식탁교제가 나의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아리와 관계 맺는 통로가 되었다.

아리는 그림 그리기와 친구를 좋아하는 14살 새내기 중학생이다. 눈망울이 예쁜 소녀인데 그 예쁜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 나와 아리는 약 8개월 동안 30번 정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다. 다양하고 긴 나눔을 하면서 아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아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둘째, 산만하고 정성스럽지 못한 아리의 글씨체를 교정하며 마음 상태와 삶의 태도를 성찰해 보게 하는 것이었다. 글씨체를 교정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아리가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제에 생각을 요약하고 써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b)는 말씀이 늘 아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아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가정의 첫 열매가 되기를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할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증거처럼 여겼던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인쳐지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4~5절).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보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영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원리는 한마디로 보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험금을 내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종교적인 보험의 원리로 내가 행한 선

행, 내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입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선행, 헌신도 이것을 기초해서 출발해야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축복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증거로 인용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6~8절).

다윗은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깊은 죄에 빠져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시 32:1~2).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을 때 겪었던 고통도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셀라)(시 32:3~4절).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죄는 간음과 살인죄만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포함된 원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임한 새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옛 생명을 끌어내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 성품을 못 박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옛 생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 순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함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회개하지 않고 불경건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단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즐거움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두 예화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박하늘나라 원장 (온누리요양센터)

온누리요양센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441)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그 가족에게는 믿음을 드리고자 온누리복지재단이 2006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이다. 많은 이들이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점을 묻는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직원 93명이 어르신 140명을 돌보고 섬기고 있다. 장기요양등급(1~2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 자격을 갖추고 온누리요양센터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도움 지원, 식사 및 간식이 제공되며,

간호처치, 물리치료, 계약의사를 통한 진료, 신체 및 인지 활동과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요양센터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법정 기준인력보다 많은 종사자를 채용해 어르신들을 더 꼼꼼히 돌보고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좋은 노인요양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어르신들의 면회 및 외출, 외박이 중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봉사자, 프로그램 강사 등 외부인들의 시설 출입도 전면 금지되었다. 이에 온누리요양센터는 방역 당국의 엄중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최대 주 5회 코로나19 검사(PCR, 신속항

원검사 교차), 증상자 예방적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3~4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온누리요양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종사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어르신들을 돌보았고, 확진된 어르신들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등 재빠르고 철저한 노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넘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서 감사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누리요양센터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예배 덕분임을 고백한다. 어르신들은 매일 새벽 5시 20분이면 여김없이 각종 거실 TV를 켜고 CGNTV로 예배를 드린다. 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제공된 영상통화 서비스로 가족과 직접 만날수는 없어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면회가 재개되어 그림던 가족들을 만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

간도 가질 수 있었다.

후원자들의 기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후원자들은 성경공부, 식사, 산책 보조, 찬양, 공연, 이·미용 등의 봉사로 섬겨주신다. 서빙고, 양재, 수원, 양지온누리교회의 여러 봉사팀이 큰 힘이 된다. 봉사자들에게 온누리요양센터 소식과 기도제목을 매월 발송하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온누리요양센터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지난 6월에는 2년 4개월 만에 센터 강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너무 오랜만의 대면 예배에 감격한 어르신들이 연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셨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마다 “아멘! 아멘!”하며 힘차게 화답하셨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신앙의 선배로서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경건함에 감동과 자극을 받는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문의: 031-334-9090

서빙고 02.793.9686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뎜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에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초등학교생을 위한 온라인 QT 세미나 'Small Change' 일정: 8월 13일, 20일 시간: 10:00~12:30(2주 과정) 강사: 하신주 선교사, 홍은경 목사, 전 휘경 집사 회비: 3만 원 접수: www.into7.net(8월 5일까지) 문의: 한순례 전도사(010-9291-8384)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임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지부 162기 지원자 모집 일시: 8월 6일~9월 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9월 3일 5주 차 수료예식(양재온누 리교회 화평홀) 강의: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접수: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02-2182-91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	--	--	--

부 천 032.322.9686	수 원 031.895.6500	대 전 042.825.3642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 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 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2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 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 (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 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 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 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인 천 032.437.9686	강 동 02.475.9686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의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의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야심야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준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풍당

여름방학, 믿음의 친구 '풍당'과 함께
은혜의 바다에 풍당

즐거운 찬양과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말씀



◦ 갯 락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밴드 갯 락스와 함께 즐겁게 배우는 말씀

총 10편



◦ 키바스 성경이야기

아름다운 노래와 그림이 가득한 성경 이야기

총 7편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행



◦ 부가부가랜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떠나는 여행, 부가부가랜드!

총 26편



◦ 씨 키즈

바닷속 친구들 씨 키즈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행!

총 13편

초등부부터 청소년까지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콘텐츠



◦ 악마수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모티브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악마들의 전략을 실감나게 그려낸 애니메이션



◦ 빛트윈스

이란성 쌍둥이 혁이와 천희가 일상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웹드라마



모두 풍당 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